



액운아 물렸거라 대보름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을 나흘 앞둔 2일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이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쥐불놀이는 음력 정월에 눈발독의 마른 풀에 불을 붙여 쥐를 쫓고 해충 등을 태워 풍년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세시풍속 중 하나다.
/함평=김진수기자 jeans@

임춘 흑한

광주 31년만에 한파
내일 평년기온 회복

찬 대륙성고기압과 북극발한기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며 광주·전남지역이 '꽁꽁' 얼어붙었다. 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최고기온은 영하 5.2도로 1981년 이후 31년만에 최저기온을 기록했으며, 전남 일부 시·군도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내 오랜만에 찾아온 흑한을 실감케 했다. 이날 흑한도는 낮 최고기온이 영하 2.3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온 1위를 갱신했다. 광주기상청은 3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임춘(立春)인 4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번 한파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극의 한기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 이달 말까지 한두 차례 강한 추위가 몰려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전남 농민 40만명 붕괴

농가 소득도 888만원으로 뚝
'농도 전남' 산업구조 급속 변모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감소한 농민 숫자가 지난해 300만명 선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전남의 농가 인구는 처음으로 40만명 이하로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일 내놓은 '농업전망 2012'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농가인구는 296만5000명으로 전년(306만8000명)에 견줘 10만3000명(3.4%) 줄어든 것으로 추졌다. 지난 2001년 400만명 선이 붕괴한 이후 10년 만에 100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농도(農道) 전남'도 다르지 않다. 전남도가 파악한 농가 인구는 지난해 2010년 말 기준으로 39만6000명. 지난 1990년대 108만명에 달했던 전남 농가 인구는 ▲1991년 96만6000명으로 줄었고 ▲1995년 74만8000명 ▲2000년 60만6000명 ▲2005년 47만7000명 ▲2009년 42만5000명까지 감소한 뒤 처음으로 4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농촌이 해체되

고 있는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 농업 인구는 15만3000명(2010년)으로 전체 인구의 38.7%를 차지한다. 전국 농가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2011년 36.2%)보다 높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 소득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 농업소득은 가구당 110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8% 하락한 뒤 2017년이면 1000만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0년 전남 농가의 평균 농업 소득은 888만원으로 전국 평균(1009만8000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나마 ▲2007년 1020만8000원 ▲2008년 859만원 ▲2009년 830만4000원으로 계속 줄어든다가 친환경 농업 등 생명산업육성 정책 덕분에 다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젊은층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남도가 중·장기 농촌 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친환경 농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비롯, 행복마을 조성 및 의료 서비스 확대 등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산업단지 속속 증설

여수 묘도 등 올 9곳 신규 조성
청정 전남 위해 업종선정 신중론

여수 광양항 앞에 위치한 섬 묘도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 산업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2일 올해 일반산업단지 3곳과 농공단지 6곳 등 9곳의 지방산업단지(250만㎡)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여수 묘도(42만5000㎡) ▲동량평산단지(74만9000㎡) ▲영암 용당(35만1000㎡)에 일반산업단지를, ▲함평 해보(32만㎡) ▲화순 동면(14만9000㎡) ▲장흥 장평(4만7천㎡) ▲해남 마산(14만6천㎡) ▲무안 맥포(32만8천㎡) ▲완도 해양(14만3천㎡) 등 6곳에는 농공단지가 조성된다. 이들 산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여수 묘도의 경우 산단 조성을 위

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5월부터 600억원을 투입, 신재생에너지·기계 부품·조립가공물류 기업 등이 들어서는 산단을 2014년까지 조성한다. 전남도는 현재 분양 공고된 전남 지역 산단 용지(7231만9000㎡) 중 분양된 산업용지(6946만2000㎡)가 96.1%에 달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4년간 산단 분양실적(13.7km)은 전국(72.6km)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엔 조성하는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자가 정

해져 있는 만큼 조기 산단 조성이 가능해 기업들의 부족한 산업용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332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해 진도 군내·해남 화원·목포 대양·영광 대마·강진 성전·순천 해룡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도 추진한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올해 투입되는 지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전국 지원액의 37.4%에 이른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청정 전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입주 업종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NEW
미백기능성
주름개선기능성
식용색소를 안전성

지금 헤라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빛을 찾아보세요
www.facebook.com/hera.kr

5 Point Whitening

피부 속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밝히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피부 속 빛의 길이 막히면 얼굴빛이 칙칙해지죠. 속부터 맑고 환한 피부를 원한다면 더욱 진화된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을 만나세요. 헤라의 바이오 기술이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마치 피부 속에 5개의 조명을 탁 کن 것처럼.

5 Point Whitening이란?
제대로된 화이트닝의 증거로서 이마, 양볼, 콧등, 턱 5군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얼광입니다

HERA

• 유통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